

주니어 배드민턴 혼합단체 세계 정상

한국, 세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 결승전 대만에 3-1 승리 9년만의 우승... 조송현·정다연 등 광주·전남 선수들 두각

한국 주니어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서 9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조송현(전대사대부고), 정다연(화순고), 박성주(전남기술과학고) 등 광주·전남 선수들이 우승에 일조했다. 한국은 22일(한국시간)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열린 2022 세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혼합단체 결승전에서 대만을 3-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6년과 2013년에 우승한 이후 13년 만에 혼합단체전에서 세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혼합단체전은 남자단식·여자단식·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 5경기를 벌여 3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경기인 남자단식에서는 김병재가 귀관린에게 2-1(14-21 24-22 21-19)로 역전승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여자단식에서도 김민선이 뤼쉬안고를 상대로 2-0(21-14 21-15) 승리를 가져갔다. 남자복식에서는 조송현-박범수가 황루이쉬안-짜이푸징에게 1-2(18-21 21-17 13-21)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여자복식에서 김민지-김민선이 니콜 곤

잘레스 잔-양주윈에게 2-0(21-18 21-12)으로 이기며 한국이 최종 승리를 가져갔다. 앞서 주니어 대표팀은 조별 예선에서 덴마크, 핀란드, 태국, 슬로바키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스페인, 4강에서는 일본에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전남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다. 정다연은 예선 덴마크전에서 김민지와 짝을 이뤄 4경기 여복에 출전, 2-1로 역전승을 거뒀고, 뒤이어 태국전에서 5경기 혼복에 김병재와 출전해 승리했다. 정다연은 최경진과 한조로 출전한 여자복식에서 승리했고 8강 스페인전에서도 김병재와 짝을 이뤄 승리를 일궈냈다. 박성주도 남자단식에서 닐로 니비스트(핀란드)를 압도적으로 제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스파이더 우먼' 서채현이 지난 21일 일본 이와테현에서 열린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모리오카 월드컵에서 볼더링 종목 준결승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클라이밍' 서채현 "올림픽 가능성 봤어요"

모리오카 월드컵 3위...올 IFSC 월드컵서 총 6개 메달 획득

서채현(19·노스페이스클라이밍·서울시청)이 올해 마지막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인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모리오카 월드컵에서 여자 콤파인(볼더링+리드) 3위에 올랐다. 서채현은 22일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에서 열린 콤파인 결선에서 131.8점을 얻어, 126점의 4위 브룩 라부트(미국)를 제쳤다. 1위는 190.9점을 얻은 모리 아이(일본), 2위는

171.2점의 나탈리아 그로스먼(미국)이 차지했다. 서채현은 매니지먼트사인 울렛스포츠를 통해 "전국체전과 아시아선수권대회, 이번 월드컵까지 대회가 연속해서 열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경험해보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메달까지 따서 정말 기쁘다"며 "이번 콤파인 경기를 통해 올림픽에 대한 가능성도 본 것 같아 더욱 열심히 훈련할 동기부여가 생긴다.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했다. 서채현은 올해 IFSC 월드컵에서 총 6개의 메달(은메달 3개·동메달 3개)을 따냈다. 리드 부문에서는 세계랭킹 2위로 시즌을 마쳤고, 올해 자신의 마지막 국제대회인 모리오카 월드컵에서는 콤파인에서 메달도 획득했다. 서채현은 서울에서 열린 2022 IFSC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콤파인과 리드 2관왕에 오르고, 볼더링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전국장애인체전 '선전'

김지혜·하성환 3관왕...광주 금 40·은 63·동 63 종합 6위



전남 첫 3관왕에 오른 하성환(가운데)



육상 여자 200m T12 김 이하은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선전하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23일 현재 금 40개, 은 63개, 동메달 63개를 수확해 종합순위 6위(종합점수 8만 1756.30점)를 지키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체전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이다. 육상은 2만점 이상을 획득, 효자종목으로 떠올랐다. 육상필드에서 9427점, 트랙에서 1만300점을 기록하는 등 모두 1만9727점을 따냈다. 이수연은 여자 200m T20에서 28초7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수연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김하은도 여자 200m T12에서 32초42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학생 선수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김지혜(광주여고·스포츠톤등급 F13)가 원반던지기과 창던지기에서 이어 포환던지기까지 금메달 획득 3관왕에 올랐다. 그는 이번 대회까지 한국신기록 3개를 보유하게 됐다. 대회에 첫 출전한 이정수(전대사대부고)는 남자 단식 SU5에서 강두현(대전)을 2-1로 꺾고 결승에 진출, 금메달을 노린다.

하성환(한전KPS)은 전남 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다. 하성환은 육상(필드) 남자 F12(시각) 포환던지기 결승에서 8m92를 기록, 정상을 차지했다. 원반던지기, 창던지기에서 우승한 하성환은 3관왕에 올랐다. 전남선수단 가운데 첫 3관왕이다. 전남 혼성 볼링 4인조는 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신백호(포스코ICT), 김수영(전남자연과학고), 박세운(한전KPS), 민진호, 이규호는 결승합계 3203점을 따내 1위를 차지했다. 최길라(서울맹학교)는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2 자유형 400m 결승에서 7분50초68로 수영부문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채경란(한전KPS)은 육상 남자 DB 200m에서 24.48초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윤리는 혼성 50m 소총 복사 R6 개인전에서 합계 219.7점을 쏘아 동메달을 보냈다. 이윤리는 주종목인 여자 50m 소총 3자세 R8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女 테니스 강자 할레프 '도핑'

9월 US오픈서 받은 테스트 양성...트위터엔 "결백"

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31·루마니아·사진)가 도핑 양성 반응을 보여 앞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P, AFP 등 주요 외신은 할레프가 지난해 9월 끝난 메이저 대회 US오픈에서 도핑 검사를 받은 결과 금지 약물인 루사두스타트를 복용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21일 일제히 보도했다. 루사두스타트는 빈혈이나 공팔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로, 적혈구 생산을 늘리는 기능을 한다. 할레프는 투어 대회에서 통산 24차례 우승한 톱레벨의 스타 플레이어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윌블던에서 총 2차례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말 랭킹 1위를 기록했고, 지금은 9위에 랭크돼 있다. 이번 도핑 검사가 이뤄진 US오픈에서는 1회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할레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선수가 도핑이 적발된 것은 2016년 마리아 샤라포바(은퇴·러시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할레프는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사실이 공개되자 곧바로 트위터에 입장문을 내고 '결백'을 주장했다.



할레프는 "루사두스타트라 불리는 물질이 극도로 미량 발견돼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듣고, 내 생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테니스 인생을 살아오며 속임수를 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난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돼 너무도 혼란스럽고 배신당한 느낌이 든다"면서 "금지된 약물을 알면서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겠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아담
- 2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3관 캐릭터, 정직한 후보2
- 4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블랙 아담
- 9관 블랙 아담
- 7관 세네카를 캐릭터, 스마일, 나를 죽여줘
- 8관 세네카를 오픈: 천사의 탄생, 미혹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